

## 고려시대 궁실건축 상량문 연구

A Study on the *Sangnyang-mun* of the Palaces and Government Offices  
in *Goryeo* Dynasty

서 치 상\*

Seo, Chi-Sang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Abstract

*Sangnyang-mun*(上樑文) is not only a memorial address for the ceremony of putting up the ridge beam, namely the *sangnyang-ceremony*(上樑式) but also the executorial record of building construction.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on the oldest five *sangnyang-muns* written for the constructions of palaces and government offices in *Goryeo* Dynasty, especially viewed in the architectural history. The results of that are as follows:

First, it is supposed that *sangnyang-mun* originated in the ancient *Chinese* ceremonial songs for the celebration of building construction. Second, as compared against the former times, the *sangnyang-muns* in *Goryeo* Dynasty were written to the advanced establishing forms and literary patterns, so to speak, these were the more developed styles. Third, in the 12th century, *sangnyang-mun* was introduced from *Chinese Song* to *Goryeo*. To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sangnyang-mun* had been to write for the *sangnyang-ceremony* as necessary memorial address. Fourth, the writers of five *sangnyang-muns* in *Goryeo* Dynasty were the new civil ministers appointed by the soldier rulers. They wrote the contents of their *sangnyang-muns*, especially focused to the king's achievements. And in the *yugwi-song*(六衛頌), they recited six poems in which were complicated the world view and aesthetics of the time.

주제어 : 고려시대, 궁실건축, 상량문, 상량식

Keywords : Goryeo period, Palace and government office, Sangnyang-mun, Sangnyang-ceremony

## 1. 서 론

## 1-1. 연구 목적과 의의

예로부터 일생일대에 집 짓는 일만 한 중대사가 드물었던지 주요 공정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의례를 치렀다. 그중에서도 지붕 용마루에 마룻대를 올리는 상량식을 가장 중시했다. 아직 완공은 멀었지만 이를 통해서 건물의 골격이 완성되고, 건축과 가장의 신인 성조신(成造神)이 탄생한다는 믿음도 이유의 하나였을 것이다. 상량문은 그때의 의례에 부치는 축문(祝文)이다. 정성껏 마련한 제물로 건축 관계자와 장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오늘의 덕업이 후대까지 영속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상량

문을 읊었던 것이다.

가장 오래된 상량문은 중국 후위(後魏) 때 온자승(溫子昇)이 지은 「창합문상량축문(闔闔門上梁祝文)」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우리나라는 이보다 늦은 12~13세기의 고려 궁실건축<sup>2)</sup> 상량문 5편이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다. 이로 보아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상량과 관련한 의례가 어느 정도는 보편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는 유난히 예제를 강조했었던지 상량식을 반드시 치러야 할 관례로 여겼다. 그런 이유로 건물은 없어졌지만 상량문은 개인 문집 등에 실려서 대단히 많은

1) 심경호, 「상량문의 문학적 시론」, 한문학보, 20집, 2009.6, 322쪽; 송나라 王應麟의 『困學紀聞』에 後魏 때 溫子昇의 「闔闔門上梁祝文」을 상량문의 기원이라 했다.

2) 궁실은 궁궐과 같은 뜻이나, 여기서는 국왕의 직접적 통치와 관련하여 왕경 내에 건립된 관영건축을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한다.

\* Corresponding Author : csseo@pusan.ac.kr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수가 전해진다. 형태도 부재에 직접 먹으로 쓴 묵서명(墨書銘)을 비롯하여, 한지나 피륙에 글을 적어서 기문장처(記文藏處)에 넣어 보관하는 지본(紙本)이나 견본(絹本)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글자 수로 보면 20~30자 내외의 '짧은 상량문'부터 500~1,000여 자가 넘는 '긴 상량문'까지 다양각색이다. 여기서 '짧은 상량문'이란 주로 대청 중도리 받침장혀와 같은 부재 표면에 용(龍)과 구(龜) 자를 상·하로 벌려 놓고, 그 사이에 입주·상량 일시만 표제형 문장으로 적는 글을 지칭한다. 살림집과 같이 비교적 격이 낮은 건물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반면에 '긴 상량문'은 글자 수가 훨씬 많고, 형태도 부재 묵서명을 비롯해서 지본과 견본까지 다양하다. 특히 내용이 많은 데다 문장은 일정한 격식에 따라 서술형과 시문으로 구성되는 점에서 '짧은 상량문'과 크게 차이 난다. 주로 궁궐이나 관아, 불전 등의 주요 건물에서 쉽게 볼 수 있다.<sup>3)</sup>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도 이러한 '긴 상량문'으로 이하 '상량문'이라 칭한다.

상량문은 후대로 오면서 일정한 체계를 갖추게 된다. 글자 수는 한층 많아지고, 내용도 더 풍부해질 뿐 아니라 전체로는 네 단락으로 뚜렷이 나뉘는 식이다. 단락 별로 보면, 서사(序詞)에는 그간의 공사 추진 과정과 입주·상량 일시를 적고, 본사(本詞)에는 건축주의 덕업과 건축 관계자의 노고에 대한 치하의 내용을 적는다. 육위송(六偉頌)에는 건물과 그 주변의 경관을 읊은 시를 담고, 결사(結詞)에는 건물의 영속과 가문의 평안을 기원하며, 후대에 대한 훈계의 내용을 담는다. 또 때로는 결사 다음에 건축 관계자나 장인들의 이름을 따로 적은 첨사(添詞)를 붙이기도 했다.

문장은 『예기(禮記)』나 『시경(詩經)』을 모본으로 삼았다. 즉, 건축 조영을 송도(頌禱)하고, 경사(慶事)를 칭도(稱道)할 때의 시문들과 같이 4언과 6언이 각기 대구(對句)를 이루는 변려체(駢儷體)로 짓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내용 중에는 고대의 역사적 사실이나 유래 중에서 모범이 될 만한 전고(典故)를 반드시 인용하며, 문장은 함축과 전아(典雅)의 특성이 최대한 드러나도록<sup>4)</sup> 했다. 상량문 특유의 독립적인 문체 유형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다만 격식과 문장이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데다, 내용

도 상투적인 미사여구 일색이어서 상량문들 간에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에선지 요즘 한문학자들도 다루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sup>5)</sup> 그러나 건축사 연구에서 상량문만큼 중요한 문헌 사료도 드물다. 실제로 궁궐 의궤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공사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간혹 창건기나 중창·중건·중수기 등이 전해지나, 완공 후에 쓴 것들이다. 또 실제 공사보다는 건축주의 행적과 덕업을 칭송하는 내용 위주이다. 이 밖에 건축을 읊은 제영(題詠)들도 대부분 의구화(擬構化)된 관념적 내용이어서 구체성이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반면에 상량문은 명실상부한 현장 기록이자 1차 사료이다. 무엇보다도 입주·상량 일시가 적혀 있어서 건립 연대뿐 아니라 완공 전후의 상황을 알 수 있다. 또 건축 관계자 이름에서는 공역 조직과 공장의 활동상을 살필 수 있다. 이 밖에도 6방에 걸쳐 노래한 육위송에는 그 시대의 조영 의도와 미의식이 함축되어 있다. 상량문이 건축사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전 상량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12~13세기 고려시대 궁실건축 상량문 5편을 대상으로 이를 건축사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상량문의 유래와 의미, 기존의 원나라 전래설을 검토한다. 또 작가와 그 시대상, 그리고 상량문의 형태적 특성으로서 글의 구성, 문체 형식을 분석하며, 건축 조영과 관련된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육위송에 담긴 당대의 조영 의도와 미의식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축사 연구에서 상량문이 갖는 사료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임종비(林宗庇)의 「연경궁정전 상량문(延慶宮正殿上樑文)」(1195), 최선(崔詵)의 「선경전 상량문(宣慶殿上樑文)」(1203), 이규보(李奎報)의 「대창니고상량문(大倉泥庫上樑文)」(1225), 이백순(李百順)의 「보정문상량문(保定門上樑文)」(13세기 초), 이장용(李藏用)의

3) 오늘날 한문학에서는 상량문을 '긴 상량문'과 '짧은 상량문' 두 가지로 나눈다. 두 유형이 글자 수가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 문장의 구성과 문체가 크게 다른 점에 따른 것이다.

4) 심경호, 앞의 글, 323쪽; 典故란 典例와 故事를 아울러 일컫는데, 특히 典據로 삼을 만한 것을 뜻하고, 典雅란 법도에 맞고 아담하다는 뜻이다.

5) 한문학에서는 오용원의 「누정문학의 양식과 문체적 특징 -누정 상량문과 기문을 중심으로-」(어문론총, 44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6.)과 심경호의 「상량문의 문학적 시론」(한문학보, 20집, 우리한문학회, 2009.6.), 두 편이 보인다. 건축사학에서는 서치상의 「機張 長安寺 大雄殿의 造營記文과 建築形式에 관한 연구」(건축역사연구, 19권, 2호, 2010.4.)와 「부산 운수사 대웅전의 조영기록과 건축형식」(건축역사연구, 22권, 5호, 2013.10.)에서 건립 연대와 변개 여부의 규명을 위해서 상량문을 다룬 바 있다.

「국자감상량문(國子監上樑文)」(1251) 등 다섯 편이다. 연경궁 정전을 비롯해서 건물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다. 그러나 상량문들은 『동문선(東文選)』 <권108>과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19>에 실려져서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량문으로 그 초시적 형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서 다섯 편의 상량문을 분석, 고찰한다.

첫째, 상량문이 언제 어떤 연유로 생겨났고, 어떤 건물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 상량 의례가 언제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격식을 갖춘 독립적인 문체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규명한다.

둘째, 무인정권하의 대몽전쟁기라는 작성 시기의 시대 상황과 함께 작가들의 행적을 살펴본다. 이어서 상량문 사례별로 작성 배경과 작가의 의도, 문장의 유형, 문체적 특성 등을 고찰한다.

셋째, 상량문 다섯 편에 구사된 전고와 전아의 종류와 성격을 고찰한다. 이는 고려시대 건축에 대한 인식과 조영 의도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육위송의 시구에서 보는 육방(六方)의 경물과 수식의 특성을 고찰한다. 이는 상량문이 당대 지식인들의 세계관과 미의식, 통치 이념과 경세치민의 의지를 천명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관건이 된다.

그런 점에서 상량문을 지금처럼 건축 유구의 일부로서만 취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즉, 서책이나 전적과 같은 서지학적 연구 대상이며, 기록유산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량문에 대한 건축사적 연구를 통해서 중요한 조영 기록이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의의가 있다.

## 2. 상량식과 상량문

### 2-1. 상량의 의미와 상징성

집 짓는 과정의 여러 공정 가운데서도 유난히 상량을 중시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최초의 점술서이자 의례서인 『주역』에는 상량을 뜻하는 ‘상동하우(上棟下宇)’라는 구절이 건축 조영의 상징어로서 언급된다. 즉,

상고시대에는 동굴에서 살았고, 들에서 거처하였는데 후세에 오면서 성인이 궁실로 바뀌어서 위로는 마룻대를 얹고 아래에는 서까래를 얹어서 풍우에 대비하게 하였으니 이는 대개 대장괘에서 취한 것이다<sup>6)</sup>

라 하여 ‘마룻대 올리고 서까래 얹는’ 일이 대장괘(大壯卦), 즉, 대자연의 장미(壯美)의 상태를 본뜬 것이라 했다. 여기서 동(棟)은 마룻대를 지칭하므로 후대에 들보를 뜻하는 량(樑)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자원(字源)으로서의 <전문(篆文)>에는 ‘棟’이란 ‘木+東’에 의한 형성(形聲)의 하나이며, 여기서 ‘東’은 무겁다는 ‘重’과 같은 뜻을 갖는다고 했다.<sup>7)</sup> 즉, ‘棟’을 건물에서 가장 무거운 하중이 실리는 부분으로, 지붕을 받치는 가장 중요한 목부재로 본 것이다.

이로 보아서 상고시대에 마룻대를 지칭하던 ‘棟’이 이후로 오면서 ‘樑’과 합쳐져서 ‘棟樑’으로 사용되거나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즉, 건축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들보를 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공정이 되면서 ‘上樑’이란 말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다만 후대에 『주역』 등에서 언급한 대로 마룻대를 올리는 ‘상동’ 때 의례를 행하되, 그 명칭은 들보를 올리는 ‘상량’으로 바뀌어 부르게 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물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차후의 연구에서 엄정하게 논증해볼 것이다.

어떻든 후대의 상량문에는 『주역』에 언급된 ‘상동하우’가 그대로 반복 사용된다. 예컨대 고려 때의 「연경궁정전상량문」(1195)에 ‘주역 대장괘의 상동하우의 모습을 취했다(規大壯之上棟下宇)’고 했고, 「선경전상량문」(1208)에는 ‘상동하우는 주역의 대장괘 모양이다(上棟下宇 取義經大壯之模)’고 했다. 또 조선시대의 「부용정상량문(芙蓉亭上樑文)」(1793)에는 ‘오직 상동하우의 규칙은 대체로 역경 대장괘의 견고한 상을 취했다(惟上棟下宇之規 蓋取諸大壯)’<sup>8)</sup>고 적는 식이다. 이 밖에도 「수강재상량문(壽康齋上樑文)」(1785) 등에서는 ‘기범구오의 조짐에 맞으니 마룻대를 올리고 서까래를 얹었도다(箕範叶九五之徵 上棟下宇)’는 구절을 빼놓지 않는다.<sup>9)</sup> 개기부터 정초, 입주, 상량, 낙성, 입택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마다 행하는 의례 중에서 마룻대를 올리는 상량을 가장 성대하게 치렀던 배경이라 하겠다.

한편, 고대 중국에서 시작된 조영 의례는 모두 귀신에게 지내는 제사 형식으로 치렀다. 개기제(開基祭, 텃고사) 때는 후토신(后土神)을, 상량제 또는 상량고사(上樑

6) 『周易』, 「繫辭傳下」, “上古穴居而野處 後世聖人易之以宮室 上棟下宇 以待風雨” (오용원, 앞의 글, 198쪽에서 전제)

7) 民衆書林 編輯局, 『漢韓大字典』, 1965, 1076쪽

8) 두 상량문은 正祖가 찬술한 御製詩文을 모아 편집한 『弘齋全書』에 실려 있다.

9) 『書經』에 나오는 ‘기범구오’는 ‘洪範九疇(홍범구주)’라고도 하여, 은나라의 현자 기자(箕子)가 제시한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으로서 이후 조영 의례의 근거가 되었다.

告祀) 때는 성조신을 조상신과 함께 모시는 식이다. 실제로 『선조실록』 41년(1608) 1월 20일조의 기사는 고려 중기부터 치러왔던 상량식이 성조신을 비롯한 제신(諸神)에 올리는 제사 형식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즉,

예조가 아뢰기를, “고묘(告廟)하는 것과 상량문(上樑文)을 대신에게 의논하니, 모두가 ‘옛적에 건설이 있으면 점을 쳐서 길흉을 정하고 제사를 지내어 귀신에게 고하였으니 지금 이 예(禮)를 행하는 것은 안 될 것 없다. 다만 상량문은 당초부터 예의(禮儀)에 관계되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중고(中古)에 나온 듯하니 송도(頌禱)의 유의(遺意)를 따르고 예에 있고 없는 것을 묻는 것은 부당할 듯하다. 성상의 재결을 바란다.’ 하였습니니다 (중략) 대신들의 뜻이 이와 같으니 후토(后土)에 제사 지내는 것은 당연히 거행해야 할 듯합니다. 상량문도 짓게 하여 옛적 송도의 뜻에 의거하여 상량하는 날에 아울러 거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다만 상량문은 몽고(蒙古)의 일이니 어찌 인용하여 준례를 삼겠는가.” 하였다.<sup>10)</sup>

라 했다.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종묘와 궁궐을 새로 지을 때 상량식 거행 여부를 논의하는 내용이다. 집을 지을 때 점을 쳐서 길흉을 정하고, 귀신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의례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량식을 제사 형식으로 치렀으니 상량문도 축문 형식으로 짓게 되었을 것이다. 가장 오래 전의 「창함문상량축문」도 제목부터 축문이라 했다. 우리의 상량문 중에도 집안 제사 때의 축문과 똑같은 문장이 들어간다. 실제로 성종 10년(1479) 승례문 중창 때 지은 「서울남대문상량문」(1479)은

維歲次…敢昭告于兒郎偉之神(유세차…감히 밝게 아랑위의 신께 고합니다)

라는 머리글로 시작된다. 흔히 ‘유세차 모년모월모일 ○○가 감히 밝게 현고학생부군께 고합니다(維歲次 某年某月某日 ○○敢昭告 于顯考學生府君)’로 시작되는 집안 제사 때의 축문 머리글과 똑같다. 다만 집안 제사 때는 조상신께 고하는 반면, 상량문에서는 아랑(兒郎)이란 귀신을 불러 고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고려 궁실건축 상량문은 글의 첫머리부터 귀신을 부르는 ‘아랑위(兒郎偉)’로 시작된다. 또 모든 상량문들의 중간에는 ‘아랑위’로 시작되는 육위송을 갖추고 있다. 물론, ‘아랑위’를 마룻대를 올릴 때 힘을 모으는 ‘어양차!’라는 식의 의성어로 보는 등 학자들

마다 여러 견해가 있다. 다만, 「서울남대문상량문」(1479)에서는 ‘아랑’이란 존재를 귀신으로 보았음이 분명하다. 여러 귀신들이 상량문 속에 포함되면서 아랑이란 단일의 귀신으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물론, 아랑과 아랑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볼 것이다.

## 2-2. 상량문의 기원과 전개

상량문은 축문이면서도 건축 조영을 송도하고 경사를 칭도하는 노래였다. 그래서인지 고대 중국의 도시와 궁궐의 조영을 경축하는 노래를 담은 『예기』나 『시경』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한다. 실제로 『선조실록』 41년(1608) 1월 24일조에는

예조가 아뢰기를 (중략) “신들이 다만 생각해 보니 옛적에 집을 지을 때에 송축하는 일이 없지 않았습니니다. 예기(禮記)에 이른바 ‘장대하고 아름다우니 여기에서 노래하고 여기에서 울며 여기에 국족(國族)을 모은다.’고 한 데에 대하여 군자가 참으로 훌륭하게 송축했다고 하였으며, 위풍(衛風)의 정지방중(定之方中)과 주아(周雅)의 사간(斯干)·면(綿) 등 편의 시가 모두 송축하기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궁실 건립하는 것을 지적하여 말한 것 같습니다. 노송(魯頌)의 비궁(闕宮)과 상송(商頌)의 은무(殷武)는 혹은 종묘를 수리할 때에 짓고 혹은 특별히 사당을 세우며 지은 것인데, 선유(先儒)가 모두 송축의 가사(歌詞)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지금 태묘를 중건하는 데 빠뜨리고 시행하지 않으면 아마도 결여된 뜻이 없지 않을 듯합니다. (하략)”<sup>11)</sup>

라고 했다. 예조가 종묘와 궁궐 중건 때 상량문 짓는 일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상량문 짓는 것이 옳다는 근거로 『예기』와 『시경』을 들었다. 건축 조영 때 제사를 지내고 송도하는 노래를 짓는 것이 예제를 규정한 『예기』에 언급되어 있고, 『시경』의 시들도 건축 조영을 송축하는 노래였다는 것이다.

『시경』은 춘추시대의 시들을 모아 엮은 유교 경전의 하나이다. 여러 나라의 민요인 국풍(國風), 공식연회 때의 의식가(儀式歌)인 소아와 대아, 종묘제사 때의 악시(樂詩)인 송(頌) 등의 4부로 구성된다. 예조가 거론한 ‘위풍의 정지방중’이란 국풍 중의 하나로 위 문공이 초구(楚丘)에 성시(城市)를 열고 궁궐을 지은 것을 노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아와 대아도 집을 지을 때 송축하기 위한 노래이며, 송에 실려 있는 노송(魯頌)과 상송(商頌)도 종묘나 궁궐의 조영을 송축한 노래라 했다. 이것들을 근거로 종전처럼 상량문을 짓도록 한 것이다.

10) 『宣祖實錄』, 41년 1월 20일, 무신조

11) 『宣祖實錄』, 41년 1월 24일조

『시경』의 시들이 변려체로 지어진 때문인지 여기서 발전된 상량문도 같은 문체로 짓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가장 오래된 「창합문상량축문」도 예외가 아니다. 글자 수는 전체 54자에 불과해서 후대의 상량문에 크게 못 미친다. 오히려 입주·상량 일시 위주로 적는 후대의 ‘짧은 상량문’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문장은 모두 14구로 4언이 두 구씩 대구를 이루는 서술형의 변려체이고, 후대의 상량문처럼 기승전결 식으로 구성된다. 즉, 상량문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시경』의 시들은 모두 4언이 대구를 이루는 변려체 문장이다. 변려체란 중국 고대에 극성을 이루었던 문체 형식으로 변체문(駢體文), 사륙변려(四六駢麗) 또는 사륙문(四六文)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변’은 두 마리의 말을 나란히 마차에다 이은 것이고, ‘려’는 두 사람이 나란히 말을 간다는 뜻이다. 예조가 거론한 위풍의 ‘定之方中 于于楚宮(定星이 바야흐로 가운데에 있거늘 초궁을 지으니)’도 같은 식이다. 대구를 존중하고, 너 자 또는 여섯 자의 구를 쓰도록 했다. 또 평측(平仄)과 압운(押韻)을 존중하며, 음조의 아름다움을 살리고, 전고의 사용을 존중하는 등 화려한 미문(美文) 의식을 높이는 것을 특성으로 했다.<sup>12)</sup>

생각해 보건대 임금의 나라를 세워서 / 크고 작은 것을 짝 지우게 했네 / 대군의 명이 있어 / 높은 문을 세워 열었네 / 좋은 날 택해서 간편하게 되었고 / 일일이 점복을 쳐서 틀림이 없도록 했네 / 대들보를 꾸미고 도리를 걸쳤으니 / 아름다운 처마는 날아오를 듯하네 / 여덟 마리 용은 아득하기만 하고 / 구중궁궐은 높기만 하네 / 대궐에 거처해서 복을 바치니 / 해에 나아가기를(선정을 베풀어) 의상을 드리우네(절로 천하가 잘 다스려지네) / 한 사람마다 경사스러우니 / 사해에 귀속하네.<sup>13)</sup>

라 했다. 임금의 명으로 점복을 치고 길일을 택해서 창합문을 세우게 되었으며, 완공된 건물은 아름답고 외외(巍巍)하니, 이후로는 선정이 크게 베풀어지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후대의 정형화된 상량문처럼 서사나 본사 등의 단락 구분이 없고, 육위송이 없을 뿐 첫 머리를 ‘유(惟)’로 시작한 축문 형식도 후대와 똑같다.

한편, 「창합문상량축문」 이후로 상량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사례가 없어서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고려 때의 상량문들은 글자 수가 많아

지고, 전체로 네 단락의 구분이 뚜렷하다. 특히 「창합문상량축문」에는 없지만, 후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아랑위’로 시작하는 육위송이 포함된다. 또 내용 중에는 전고를 반드시 인용하고, 변려체로써 전아의 특성을 한껏 드러내도록 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조선시대로 오면 상량문은 한층 더 체계화되고 내용도 풍부해진다. 전체의 구성과 문체 형식도 일정한 체계를 갖춰서 다른 장르의 문장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오언절구(五言絶句)나 칠언율시(七言律詩) 등과 마찬가지로 상량문도 정형화된 독립적인 문체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종 연간의 경복궁 재건 때 몇 편의 상량문을 지은 바 있는 문장가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 명나라 서사승(徐師曾)의 『문체명변(文體明辨)』(1570)을 빌어 상량식과 상량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상량문이란 공사(工師)가 들보를 올릴 때 하는 말이다. 세 속에서 궁실을 지을 때면 반드시 길한 날을 받아서 상량을 한다. 이때 친지와 손님들이 요즘은 만두(饅頭)라고 부르는 면(麵, 만두)에 싯 음식을 다른 음식물과 함께 올리며 경사(慶事)를 칭도(稱道)하고 인하여 장인(匠人)들을 호궐(犒饋)한다. 그러면 장인의 우두머리가 면(麵)을 들보에다 던지면서 이 글을 외우며 축원한다. 그 글의 첫머리와 끝부분은 모두 변려문을 사용하고 중간에는 각각 3구씩으로 된 시 여섯 수를 써서 사방(四方)과 상하에 배당하니, 이것은 대개 속례(俗禮)인 듯하다. 이제 그 법을 논하여 하나의 문체 유형으로 구비하였다.<sup>14)</sup>

라 하여 집을 지을 때는 점을 쳐서 길한 날을 받아서 상량을 하는데, 이때 건축주와 친지, 유사(有司), 장인 등이 모여 축하하며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 또 마련한 음식으로 장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며 접대하는데, 상량문은 장인의 우두머리가 들보의 6방에 걸쳐 면에 싯 음식인 만두를 던지며 축원하는 노래라 했다. 이어서 상량문의 문체 형식에 대해서는 첫머리와 끝부분에 모두 변려체를 사용하며, 그 중간에 각기 3구씩으로 된 시 6수를 써서 동·서·남·북의 사방과 상·하에 배당한다고 했다. 상량문의 셋째 단락인 육위송을 말한 것이다. 이를 장인의 우두머리가 읊는 노래인데, 이후 하나의 문체 유형으로 성립했다고 했다.

실제로 상량문은 독립적인 장르로까지 발전되어 크게

12)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변려문[駢麗文]”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3) 『漢魏六朝文編(續)』, 「閭闔門上梁祝文」; ‘惟王建國, 配彼太微, 大君有命, 高門啓扉, 良辰是簡, 枚卜無違, 彫梁乃架, 綺翼斯飛, 八龍杳杳, 九重巍巍, 居宸納祐, 就日垂衣, 一人有慶, 四海攸歸’

14) 李裕元, 『林下筆記』, 卷二, 1884; ‘上樑文者 工師上梁之致語也 世俗營構宮室 必擇吉上梁 親賓裏麩 今呼饅頭 雜他物稱慶 而因以犒匠人 於是匠人之長 以麩拋梁 而誦此文以祝之 其文首尾 皆用麗語 而中陳六詩 詩各三句 以按四方上下 蓋俗禮也 今論其法 以備一體’

중시되었다. 『정조실록』 16년(1792) 3월 1일조에도,

국왕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응제 시험을 보이면서 상량문을 명(銘)·부(賦)·시(詩)와 함께 각기 제목을 내어 각자 원하는 대로 지어 올리게 했는데, 모두 4천 명의 응시생 중 80명을 뽑아 등급을 나누어 상을 주었다.<sup>15)</sup>

고 했듯이 명·부·시 등 다른 장르의 문장들과 대등하게 취급되었다. 또 영조 20년(1744) 8월 20일에는 국왕이 어용을 봉안하는 태녕전(泰寧殿)의 중수 상량문을 직접 지어서 내려 주었고,<sup>16)</sup> 이듬해 3월 7일 선원전(璿源殿)에 선왕의 위패를 봉안할 때 중수 상량문을 지은 제조 정우량(鄭羽良)에게 주면서 운필하는 데 참고하도록 노래를 지어 준 일도 있었다.<sup>17)</sup> 이 밖에도 정조 10년(1786) 7월 6일에는 국왕이 친히 효창묘(孝昌廟)의 정자각(丁字閣) 상량문을 짓기도 했다.<sup>18)</sup> 물론 칭송과 찬사 일색인 점들 들어 예의에 맞지 않고 사치스럽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sup>19)</sup> 그러나 최고의 문장가들로 하여금 상량문을 짓도록 하고, 심지어 국왕이 친히 짓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상량문이 크게 성행했던 때문인지 글자 수는 더욱 많아지고, 내용도 한층 풍부해진다. 또 전체로는 서사, 본사, 육위송, 결사 등 네 단락이 뚜렷해지고, 끝에 공사 관계자 이름을 적은 첨사가 빠짐없이 붙는 등 일률적인 격식을 갖추게 된다.

즉, 도입부인 서사는 첫머리를 ‘竊以(몰래)’, ‘伏以(엎드려)’, ‘述夫(무릇)’, ‘夫(무릇)’ 등으로 시작해서 건축 조영을 하게 된 배경이 위주이다. 이어서 본사는 ‘輿惟(깊이 생각하니)’, ‘伏惟(엎드려 생각하니)’, ‘恭(삼가)’, ‘惟(생각하니)’ 등으로 시작해서 공사의 진행 과정, 그간의 건축주와 유사의 덕업을 칭송하는 내용을 위주로 서술한다. 상량문 특유의 육위송은 완공된 건물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상·하 6방에 걸쳐 원근의 경관을 ‘兒郎偉拋樑○(아랑위! 들보○쪽으로 떡을 던지니)’<sup>20)</sup>로 시작되는 7언 3구씩 18수로

15) 『正祖實錄』, 16년 3월 1일, 경오조

16) 『英祖實錄』, 20년 8월 20일, 갑자조

17) 『英祖實錄』, 21년 3월 7일, 기묘조

18) 『正祖實錄』, 10년 7월 6일, 정미조

19) 『肅宗實錄』, 즉위년 9월 18일, 기묘조. 산릉 정자각의 상량문을 金壽恒이 지었는데 문체가 歌頌의 樂章에 가깝다는 이유로 쓰지 않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英祖實錄』, 30년 6월 22일, 경오조에는 사헌부에서 彌善 李壽鳳은 성질이 간사하고 행실이 비뚤어진 사람으로 花水殿의 상량문을 지어냈는데, 허황한 말을 떠벌리어 일세를 선동하고 현혹하여 스스로 뽑낼 생각을 했다 하여 벌주자는 내용이 나온다.

20) 이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여기서는 王應麟의 『困學紀聞』과 李裕元의 『林下筆記』에 근거해서 일단은 이와 같이 해석하고자 한다.

노래했다. 또 결사는 ‘伏願上樑之後(엎드려 비옵건대 상량한 후에는)’, ‘伏願上樑後’, ‘上樑之後伏願’ 등을 첫 글자로 시작해서 완공 후로는 나라와 집안이 평안하고, 건물이 영속하기를 기원하면서 상량 일지와 작가 이름을 적는다. 그리고 마지막의 첨사에서 유사, 공장, 역군 등 공사 관계자의 이름을 순서대로 적었다.

한편, 이유원은 원나라 진역증(陳繹曾)의 『문전(文筌)』을 인용하면서 상량문과 비슷한 문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또 안찰하건대, 원나라 진역증(陳繹曾)의 『문전(文筌)』에 실린 보병문(寶瓶文)에 “미장이가 용마루(동척, 棟脊)를 칠할 때 부르는 노래이다.”라고 하였는데, 여러 문집에는 이런 글이 없으므로 정식을 삼을 수가 없다. 삼가 생각건대, 그 글은 대략 상량문과 같고 끝 부분에 시를 열거한 것은 악어(樂語)의 구호에 비견되는데, 다만 사방과 상하에 배당되는 글이 없을 뿐이다.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으나, 우선 그 말을 여기에다 붙여 두기로 한다. 송나라 사람이 또 상패문(上牌文)을 두었는데 이것은 대개 편액을 올릴 때 사용하는 말이다. 역시 상량문으로 인하여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sup>21)</sup>

라 하여 상량문과 비슷한 글로 미장이가 용마루를 칠할 때 부르는 노래인 보병문과 편액을 올릴 때 부르는 상패문을 들었다. 다만 이 글들은 육위송이 없는 것이 상량문과 다르고, 우리나라 문집에는 없어서 정식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중국과 달리 상량식 때 부치는 제문 형식의 ‘긴 상량문’만 사용했음을 지칭한 듯하다. 물론, 오래된 사찰건축 목서명 중에는 상량문 말고도 발원문과 같이 다른 형식의 글들이 보인다. 보병문 등과 성격이 흡사하나,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뤄볼 것이다.

### 3. 고려시대의 상량문 고찰

#### 3-1. 작성 시기와 작가

##### (1) 원 전래설 검토

우리나라에서 상량식을 언제부터 치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는 충선왕 복위 원년(1309)에 원의 제도를 따라 처음 상량식을 행했다고 했다. 그런데 현전 상량문으로 가장 앞서는 「연경궁정전상량문」은 충선왕 복위 원년보다 114년이나 앞선 명종 25년(1195)에 작성되었다. 시기가 크게 차이 나고,

21) 李裕元, 『林下筆記』, 卷二, 1884; ‘又按元陳繹曾文筌 有寶瓶文云 巧者塲棟春之詞 而諸集無之 無以爲式 竊意其詞 大畧與上樑文同 末亦陳詩 如樂語口號之比 第無四方上下諸章耳 未知是否 姑附其說於此 宋人又有上牌文 蓋上篇額之詞 亦因上梁而推廣之也’

중국에서의 왕조도 원이 아니라 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량 의례가 언제 어디로부터 전래하였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상량식이 원에서 전해졌음을 시사하는 『고려사』의 충선왕 복위 원년(1309) 3월 10일 기사조의 다음 기록이다.

3월 기사 검교중앙(檢校中護) 배정(裴挺)과 내부령(內府令) 강룡(姜融)에게 강안궁(康安宮)과 연경궁(延慶宮) 두 궁궐을 새로 중수하도록 하였다. 전국에서 공사(公私)의 건축자재를 모두 관에서 거두어서 궁궐건축에 공급하게 한 탓에 온 나라가 원망하므로 얼마 후 강안궁 공사를 중지하였다. 연경궁의 상량에서는 상국(上國)의 제도를 모방하여 백관(百官)이 모두 은과 비단과 저포(紵布, 모시베)를 선물로 올려 하례하였으며, 6품 이상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전각과 회랑은 기둥이 모두 410개였는데 배정이 설계한 것이었다.<sup>22)</sup>

고 하여 개경에 있던 연경궁 정전을 지으면서 상량 때 의례를 행했다는 내용이다. 그날 백관이 모두 모여 축하하고, 은과 견, 저포로 폐백(幣帛)을 바쳐 하례했으며, 6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다. 후대의 상량식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국, 즉 원나라의 제도를 모방해서 행했다는 부분이 주목된다. 충선왕은 충렬왕과 원 세조(Khubilai Khan, 1215~1294)의 딸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치세 동안 원과의 문화 교류를 크게 촉진했다고 알려져 있다. 조선 초기에 조준(趙浚, 1346~1405) 등이 『고려사』를 집필할 때 이런 사실을 감안해서 상량식이 원나라로부터 처음 도입된 것으로 서술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 다른 기록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던 공민왕 때의 두 기사이다. 먼저 『고려사절요』 공민왕 19년(1370) 6월조에는 노국공주(魯國公主)의 영전(影殿)을 건립할 때 관음전 제3층을 상량했는데, 잘못하여 깔려죽은 자가 26명이나 되었고, 이에 태후가 공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sup>23)</sup>고 기록된다. 또 『고려사』 공민왕 20년(1371) 4월조에는 왕이 영전에 행차하여 상량하는 일을 관람한 후 자은사(慈恩寺)로 행차했다고 기록된다. 원래 왕륜사(王輪寺)에 있던 노국공주의 영전을 마암(馬岩)이란 곳에 옮겨 새로 지을 때 상량식을 치렀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고려사』 등의 기록만 보면 상량식이 원나라에서 전래하여 궁실과 왕실원찰을 건립하는 데서부터 행

해졌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와 같은 견해는 조선시대 집권층에서도 갖고 있었다. 즉, 『선조실록』 41년(1608) 1월 20일조에는,

예조가 아뢰기를 “상께서 ‘상량문(上樑文)은 몽고(蒙古)의 일인데 어찌 그를 인용하여 준례를 삼겠는가.’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유신(儒臣)이 왕반(王磐)이 지은 것을 찾아냈는데 이는 바로 호원(胡元)에서 사당을 건립할 때의 글이니, 성상의 하교에 ‘어찌 준례를 삼겠는가.’ 말씀한 것이 참으로 당연합니다. (중략) 더구나 왕반이 지은 것은 비록 몽고의 일이라고 하지만 상량문은 전부터 시작되어 송나라 선유(先儒)들이 지은 것을 뚜렷이 볼 수 있으니 몽고에서 준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지금 태묘 상량의 축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론이 동일하니 삼가 상께서 결단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였다.<sup>24)</sup>

라 했다. 국왕은 상량문이 몽골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았지만, 예조는 다른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원나라 때 사당을 건립하면서 왕반(王磐)이 상량문을 지은 사실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에 앞서 송나라 때부터 상량문을 지었다는 것이다. 상량문이 원나라에 앞서 송나라와 교류할 때 전래하였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로 현전하는 고려 궁실건축 상량문 5편은 『고려사』나 『선조실록』에 기록된 원 간섭기 이전에 작성되었다. 가장 앞서는 「연경궁정전상량문」이 작성된 명종 25년(1195)은 원 간섭기가 시작되는 충렬왕 즉위년(1274)보다 79년 전이다. 또 나머지 4편은 대몽전쟁기 중에 작성되었다. 원나라 전래설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물론, 상량문이 상량식보다 먼저 전래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량문은 상량식 때 고하는 축문인 만큼 그 둘은 따로 떼어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상량문이 원 간섭기에 전해졌다는 『고려사』나 『선조실록』의 기록은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임종비의 「연경궁정전상량문」이 작성된 명종 25년(1195) 이전 송나라에서 전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2) 작가와 시대 상황

현전하는 고려 궁실건축 상량문들의 작성 시기는 1195~1251년으로 무신정권 주도하에 대몽전쟁을 수행하던 때였다. 대내외적 상황은 물론이고 상량문을 지었던 이규보 등 문신들의 입장도 종전과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특히 의종 24년(1170) 이의방과 정중부 등은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후 모든 문신을 적으로 돌리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학살을 감행해서 문(文)의 공백 상태를 자

22) 『高麗史』, 忠宣王 복위 원년(1309), 3월 10일, 기사조

23) 『高麗史節要』, 恭愍王 19년(1370), 6월조

24) 『宣祖實錄』, 41년 1월 24일, 임자조

표 1. 고려 궁실건축 상량문의 작가

구분	작성 연대	작가		관직		비고
		이름	생몰 연대	작성 당시	최종	
延慶宮正殿上樑文	1195	林宗庇	미상	미상	한림학사	의종 및 무신정권 초기
宣慶殿上樑文	1203	崔誥	미상~1209	추밀원사	문하시랑평장사	최충헌 집권기
大倉泥庫上樑文	1225	李奎報	1168~1241	추밀원사	문하시랑평장사	최충헌·최우 집권기
保定門上樑文	13C 초	李百順	미상~1237	한림학사	국자감대사성	최충헌·최우 집권기
國子監上樑文	1251	李藏用	1201~1272	추밀원승지	문하시중평장사	최우·최항 집권기

아내게 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나마 살아남은 구 문신 중에 이인로(李仁老)나 임춘(林椿) 등은 죽림고회(竹林高會)를 자칭하며 현실과 담을 쌓고 은둔했다. 그러나 일부는 출세의 기회로 삼아 무신정권과 타협하여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른바 신진사류(新進士類)를 형성한 것이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로 최충헌 일가의 총애를 받으면서 무신정권의 합리화와 정당화를 위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리고 ‘이문화국(以文華國)’의 기치로 몽골 침입이란 국가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뛰어난 문재(文才)를 발휘하는 한편, 종전과 다른 새로운 문학적 기풍을 확립하기도 했다. 연구 대상인 상량문 5편의 작가들이 그런 부류의 대표적 인물들이었다.

먼저 「연경궁정전상량문」을 지은 임중비(생몰 연대 미상)는 의종 말부터 정중부의 난이 발생하기 전인 명종 초 사이에 한림학사를 지냈다. 조카 임춘은 은둔했지만 자신은 무신정권에 그대로 남아 이규보를 발탁해서 환계(宦界)로 진출시키기도 했다.<sup>25)</sup> 그는 상량문의 기본문체인 4, 6언 변려체에 뛰어난 문장가로 알려져 있다.<sup>26)</sup> 『동문선』에는 국왕의 선정을 찬양하는 「등석치어(燈夕致語)」등 7편의 글이 전해진다.

「선경전상량문」을 지은 최선(?~1209)은 최충헌이 집권한 후 명종 27년(1197) 12월의 두 번째 인사발령 때 등용된 문신 5명 중 한 사람이다. 최종 벼슬이 문하시랑평장사로 재상의 지위까지 올랐다. 그는 최충헌이 집권하기 전부터 친분이 두터웠는데, 최우(崔瑀)를 조카사위로 맞이한 아들 최종준(崔宗峻)도 문하시중에 이르렀다.

25) 장병장, 「고장의 인물」, 예천신문; 임중비는 특히 4·6체의 글짓기에 능한 재주가 있었다. 윗자리 사람에게 축하 사례의 글이나 진정서, 안부 편지 등을 올릴 때 옛사람들의 글 중에 좋은 것을 뽑아서 서로 맞추어 새로 글을 지어야 좋다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풍습이 고려 후기에 있었는데, 이 풍습은 임중비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옛사람들의 글로써 서로 맞출 때 흔히 길고도 산만해져서 읽기도 거북하고 구절 끊기가 어려운 것이 많았는데, 임중비의 글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26) 『新增東國輿地勝覽』, 제24권, 「慶尙道 醴泉郡」

또 손녀를 최항(崔沆)에게 출가시키는 등 후손들이 최씨가문과 증첩된 혼인으로 크게 번성했다.<sup>27)</sup> 그가 「선경전상량문」을 짓던 1203년 무렵에는 법제 및 격식 제정기관인 식목도감(式目都監)의 수장이었다. 이규보는 최선을 가리켜 ‘문장의 세가(世出文章伯)’<sup>28)</sup>라 할 정도로 문장력이 뛰어났다. 국서 외에도 오언배율(五言排律)과 칠언율시 등 여러 편이 『동문선』에 전해진다.

「대창니고상량문」을 지은 이규보(1168~1241)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면서도 무신정권에 적극 협조한 어용 정치가란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그는 희종 1년(1205)에 집정상국대학사(執政相國太學士) 최선에게 「상최상국선서(上崔相國誥書)」라는 글을 올려 벼슬을 구한 적 있다.<sup>29)</sup> 이후 임중비와 최선의 천거로 처음 벼슬길에 나가게 된다. 희종 3년(1208)에는 최충헌이 그의 모정(茅亭)에서 개최한 연회 때 지은 글이 인정받아 직한림원(直翰林院)에 권보(權補)되었다. 고종 4년(1217)에는 최충헌의 위업을 찬양하는 「상진강루사직한림계(上晉康侯謝直翰林啓)」를 짓는 등 집권자의 총애를 크게 받았다.

이규보는 최우 집권기인 고종 12년(1225) 사마시(司馬試)의 시관(試官)으로서 「대창니고상량문」을 짓는다. 그 2년 후 몽골이 침공하자 고종 19년(1232)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30여 년에 걸친 대몽항쟁에 들게 된다. 이때 국난극복을 위해 뛰어난 문재를 발휘하여 동방의 시호(詩豪)라고 불리는 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발휘했다. 이후 여러 직을 거쳐 문하시랑평장사로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는 문학사상 당시까지 가장 방대한 규모의 개인 시문집인 『동국이상국집』을 남긴 독보적인 문장가였다.

「보정문상량문」을 지은 이백순(?~1237)은 최우 집권기

27) 「고려 무신정권기 문신의 지위에 대한 고찰」, 『마한역사교실』, 원광대학교 사학과 (<http://mahan.wonkwang.ac.kr/nonmun/2005non/2.htm>)

28) 李奎報, 「上崔樞密誥」(『東國李相國集』, 7권, <古律詩>)

29) 『東國李相國集』, 「上崔相國誥書」



에 문장으로 이름이 크게 높았다. 고종 20년(1233) 장작감(將作監)으로 국자감시(國子監試)를 주관했고, 이듬해엔 대사성(大司成)으로서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어 지공거(知貢舉) 이규보와 함께 과거를 주관하여 신진 문신들을 선발했다. 이후 보궐(補闕), 낭중(郎中), 학사(學士) 등을 역임했다. 그는 이규보, 최자(崔滋), 이수(李需), 하천단(河千仞), 이함(李咸), 임경숙(任景肅) 등 당대의 문인들과 함께 최우의 총애를 받으면서 서방(書房)에 소속되어 집권자를 위한 글을 많이 작성했다.

이백순은 「보정문상량문」을 지을 무렵 국자감 주장인 대사성으로 있었다. 『동문선』에는 그의 칠언절구를 비롯해서 제고(制誥), 관고(官誥), 표전(表箋) 등 여러 편의 글이 실려 있다. 또 『동국이상국집』에는 이규보가 그를 추모하며 쓴 「학사 이백순을 곡함(哭李學士百順)」이라 글이 실려 있는데, 일설에는 문제가 뛰어난 두 사람이 문장을 두고 겨루기도 했다고 한다.

「국자감상량문」을 지은 이장용(1201~1272)은 최우에 이은 최항의 집권기까지 활동했다.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해서 서경사록·교서랑 겸 직사관·국자대사성 추밀원승지를 거쳐 고종 43년(1256)에는 추밀원부사·정당문학을 역임했다. 당시는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항쟁을 벌이던 때로 추밀원승지로서 이 상량문을 지었다. 이후 원 간섭기가 시작되는 원종 1년(1260)부터는 참지정사 수태위 감수국사 판호부사가 되고, 증서시랑평장사에 이어 수태부 판병부사 태자태부에 올랐다. 마지막엔 문하시중으로서 명재상의 이름을 높였다.

이장용은 국왕을 수행해서 원나라에 다녀오기도 하는 등 외교적 수완이 뛰어났으며, 경사(經史)뿐만 아니라 음양·의약·율력에 이르기까지 통달했다고 한다. 문장에 능하고 불서도 깊이 연구했는데, 『동문선』에는 그가 쓴 칠언절구, 칠언절구, 제고, 관고, 표전, 서 등 많은 글이 전해진다.

이상에서 보듯이 작가 다섯 사람은 임중비를 제외하면 모두 최충헌이나 최우 집권기에 출사했던 신진 문신들로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이었다. 저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고원(誥院)이나 서방 소속으로 제고, 관고, 서 등과 같은 국왕의 교지를 맡아 썼던 점에서 공통적이다. 뿐만 아니라 화려한 문체의 시문들은 국왕의 선정과 덕업을 찬양하는 내용 일색인 점도 비슷하다.

특히 이규보 등은 무신정권에 협력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이문화국’, 즉, 문으로 유교적인 통치를 구현함으로써 나라를 빛내는 일이라 했다.<sup>30)</sup> 이러한 의지는 여러 글에

서 극도의 미사여구로 국왕의 치적과 덕망을 찬양하는 식으로 표현되었다.

한편으로 당시의 신진 문신은 고려 전기의 귀족적인 사장풍(詞章風) 중심의 문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회의 부조리 현상을 반영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규보처럼 『동명왕편』에서 대몽항쟁기에 고려가 강성했던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천명하는 등 국가와 민족에 대한 예찬과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또 왕자(王者)들에 대한 풍간(諷諫)의 시문을 유행시키는 등 ‘이문화국’의 기치로 이후 조선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신진 사대부의 출현에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득의에 찬 신진사류의 관능적 향락과 호탕(豪宕)한 기풍의 화려한 문장을 과시하는 「한림별곡」 등이 이규보 등에게서 나오게 되었다.

### 3-2. 상량문의 사례 별 고찰

#### (1) 연경궁정전상량문(1195)

명종 연간에 개경 연경궁 정전을 새로 지을 때 임중비가 지은 상량문으로,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다.<sup>31)</sup> 『동문선』에는 서사 128자, 본사 162자, 육위송 155자 등 452자만 실려 있다. 결사나 첨사가 없어서 상량 일시는 확인할 수 없다. 원래 없었던지, 아니면 『동문선』에 옮겨 쓸 때 결락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고려사』 명종 26년(1196) 8월 25일 임신조에

왕이 수창궁(壽昌宮)에서 연경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신묘년(1171)에 궁궐이 불탄 이후 금(金)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먼저 강안전(康安殿)과 대관전(大觀殿)을 신축하고, 금 사신이 도착하면 강안전으로 들어가서 대관전에서 접견하였다.<sup>32)</sup>

구차하게 스스로 자기 한 몸의 영화로운 벼슬을 경영하고자 할 따름이 아니고 대개 마음에 배운 바를 장차 정치에 베풀며 經國濟世의 방책을 떨치고 힘을 왕실에 베풀어 이름을 백세까지 날려서 길이 남기를 기약하는 것입니다고 한 데서 잘 드러난다.

31) 林宗庇, 「延慶宮正殿上樑文」(『東文選』, 제108권); ‘周成王之營洛邑書稱歎其天休 衛文公之作楚宮 詩美得其時制 惟昔然矣 於今否乎 切惟道之廢興 皆關於數 物之衰王 亦係於時 洪惟我朝 增光奕葉 繫魏闕之震地 有漢家之離宮 群峯屏衛乎其間 衆水環迥乎其側 山川形勝 悅如海上之蓬萊 殿闕深沉 宛若壺中之天地 歷星霜者寢久 爲風雨之所漂 久莫能修 理將有待 恭惟主上 體廣淵之德 乘積累之基 遣大投艱 不敢寧于上帝命 撥亂反正 式克至于今日 休 猶無自暇之心 益得重興之志 厥惟考室 亦尙儲精 法斯干之桷楹 庭庭 規大壯之上棟 下宇 命工師而度木 關舊宅以廣居 經之營之 其役不踰於數月許 高矣美矣 所成幾至於百間餘 邦雖舊而命惟新 事半古而功必倍 乃涓穀旦 將舉修梁 度既肇於垂成 致鶩雀之相賀 樂不待於交奏 知鳳凰之來儀 致理之期 自今以始 兒郎偉拋梁東 修梁屹屹壯如虹 蓬萊駕浪開仙闕 四海欣瞻日月瞳 兒郎偉拋梁西 倚天高架跨雲霓 冠帶百蠻歸盛德 碧梧重見鳳凰栖 兒郎偉拋梁南 千重華構勢耽耽 金泥封禪嘉期近 嵩嶽應呼萬歲三 兒郎偉拋梁北 嘉氣鬱葱籠紫極 堂上奇兵如有神 玉關無事風塵息 兒郎偉拋梁上 萬瓦鱗鱗門有仇 何人移得紫微宮 金碧交輝迷俯仰 兒郎偉拋梁下 祥風吹拂鴛鴦瓦 無像大平今適當 (下缺)’

30) 이는 李奎報의 「上崔相國誥書」에 ‘또 선비로 처음 벼슬하는 자는

라 했다. 명종 1년(1171) 궁궐이 불에 났는데, 이후 강안전과 대관전을 새로 짓고, 1196년 8월 25일 연경궁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했다. 강안전과 대관전은 연경궁에 속한 전각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정전은 건덕전(乾德殿)으로도 불렸던 대관전을 말한다. 따라서 연경궁 정전인 대관전을 새로 지은 때는 위의 기사가 작성되기 1년 전인 명종 25년(1195) 무렵이며, 상량문도 이때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대의 규식에 적용해보면 이 상량문은 네 단락으로 나뉜다. 서사는 첫머리에 ‘伏以’ 등을 생략하고 바로 주성왕의 낙읍 경영과 위 문왕의 초궁(楚宮) 조영을 『서경』과 『시경』에서 찬양했음을 언급했다. 일종의 전고인 셈이다. 그러면서 궁궐이 풍우에 허물어져서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지금의 명종에 이르러 복구한 것을 성왕과 문왕의 업적에 비유했다. 문체는 ‘옛날은 그러하고(惟昔然矣),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於今否乎)’라는 식으로 4언 중심의 변려체를 사용했다. 이 밖에도 성왕과 문공, 『서경』과 『시경』 등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 구씩 대구를 이루도록 했다.

본사는 ‘恭惟’를 머리글로 시작하는데, 지금에 이뤄진 궁궐 조영의 내력을 적었다. 특히 당시 국왕이었던 명종에 대해서는 ‘난리를 물리치고 반정을 일으켜서 오늘에 이르러 이렇게 아름답도다(撥亂反正 式克至于今日休)’는 식으로 찬양했다. 사실, 명종은 의종 24년(1170) 정중부의 난으로 왕위에 오른 실권 없는 허수아비 왕이었다. 궁궐을 조영할 무렵은 이익민 집권기로 무도하기 짝이 없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왕실의 법통을 지키려던 신진사류의 의도를 글 속에 담고 있다.

반면에 공사 내용은 『시경』의 「사간시」와 『주역』의 「대장괘」를 본떠 지었고, 대목에 명하여 두 달이 못되어 완공을 보았다는 정도로 소략하다. 이어서 길일을 택해서 들보를 올리는 상량식을 거행함에 연작이 하례하고 봉황이 춤추니 선정이 기대된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서사와 마찬가지로 4언, 6언, 7언, 8언이 대구를 이루는 변려체로 썼다.

육위송은 동·서·남·북 및 상·하의 6방에 각기 7언 3구씩 모두 162자로 완공 후의 경관을 그렸는데, 맨 마지막 1구는 누락된 상태이다. ‘兒郎偉拋梁○’로 시작되는 첫구는 후대의 상량문과 동일하다. 6방에 걸쳐 주변 경관을 노래했는데, 동쪽은 구름에 걸린 높은 시렁(高架), 남

쪽은 송악산, 북쪽은 자극성, 위로는 처마 기와, 아래는 원앙기와를 주제어로 삼았다. 주변 경관을 미화하기 위해서 극도의 예술적 기교로 표현하고 있다.

결사와 첨사는 결합된 탓에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 다만, 단락의 구성과 문체는 후대의 상량문과 거의 다를 바 없다. 전체적으로 국왕의 덕을 칭송하는 데 치중한 반면, 건축 내용은 대단히 소략한 편이다.

## (2) 「선경전상량문」(1203)

최선이 신종 6년(1203) 개경 선경전을 중건할 때 지은 상량문이다.<sup>33)</sup> 서사 48자, 본사 264자, 육위송 162자, 결사 60자로 전체 534자가 『동문선』에 실려 있고, 첨사는 결합된 상태이다.

서사는 첫머리를 ‘伏以’ 등이 아니라 ‘兒郎偉’로 시작되는 점이 특이하다. 육위송의 첫 구를 머리글로 쓰는 것이 후대의 상량문과는 크게 차이 난다. 「연경궁정전상량문」과 마찬가지로 주성왕과 위 문공이 궁궐을 짓고 도읍을 경영한 사실 등을 전고로 인용했다. 또 문장은 4, 7언 위주로 두 구씩 대구를 이루는 변려체로 썼다.

본사는 ‘恭惟’라는 머리글에 이어서 ‘계림에 황엽이 떨어지고, 곡령의 청송이 성하리라(謂鷄林黃葉之將殘 唯鶴嶺青松之方茂)’는 식의 대구로 시작된다. 태조 왕건이 신라(계림)를 멸하고 새 왕조(곡령)를 열어 삼국을 통일해서 도읍과 궁궐을 경영하여 오늘에 이르렀음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고려가 고려를 계승한 정통성을 내세우고자 했던 신진사류의 의도가 읽힌다. 이어서 화재와 수재로 궁궐이 무너져 없어졌는데, 이때 이르러 대목에 명하여 새로 짓게 되었음을 언급했다. 여기서도 『주역』의 대장괘와 한나라 장안궁의 제도를 따랐음을 전고로 인용했다. 또한 백성을 괴롭히지 않고 공사비를 줄였으

33) 崔詵, 「宣慶殿上樑文」(『東文選』, 제108권);

兒郎偉 斯干考室 周雅歌君子之寧 楚丘營宮 衛風美百姓之說 故處崇高而示遠 必須壯麗以重威 百王所同 萬世永賴

恭惟國家 祖聖應期而興作 神人獻畫以經綸 謂鷄林黃葉之將殘 唯鶴嶺青松之方茂 順天休命 卜我上都 合三土以爲一家 霈然莫禦 由數基而創萬世 巍乎有功 載囊弓矢 而戢干戈 始立城市 而營宮室 聖賢相繼 制作增華 頃因回祿之爲災 而復畢方之是崇 諛諛出出 如聞毫社之鳥鳴 噉噉炎炎 未有吳宮之鶯窟 痛宮闈之焚蕩 無以究皇儀 而展帝容 命梓匠以經營 使模玄象 而體宸極 衆工方僦 秘宇迄成 惟大殿之宏規 當坤靈之正位 斷自宸衷 營於舊址 上棟下宇 取義經大壯之模 左城右平 法漢室長安之制 非特相陰陽之宜 而得時之吉 抑亦損土木之費 而使民不勞 既能去秦而去奢 所以可長而可久 今涓穀旦 將舉脩梁 因萬口之歡謳 奏六方之善祝

兒郎偉拋梁東 不霽何虹掛半空 五玉會朝君子國 大平佳氣鬱葱葱 兒郎偉拋梁西 危構方將嶽巖齊 燕雀焉知徒自賀 鳳凰他日定來栖 兒郎偉拋梁南 萬歲山光翠似藍 化及濃沿功鼎盛 上當咸五下登三 兒郎偉拋梁北 大壯規模難再得 聖主儲精蠅漢中 星辰錯落環宸極 兒郎偉拋梁上 創造功夫歸郢匠 上憲驚闐結構雄 鈞天帝所應難尙 兒郎偉拋梁下 喜氣權聲遍朝野 想得千官擁翠華 落成行慶耽耽廈

上梁以後 伏冀王猷炳煥 國祚靈長 比衆星之共辰 雲從龍風從虎 振長策而御宇 車同軌書同文 三革五兵之寢消 千倉萬廩之盈朒 本支百世 綱紀四方 (下缺)

32) 『高麗史』, 明宗 26년(1196) 8월 25일, 壬申條: 王自壽昌宮移御延慶宮, 自辛卯宮闕災, 爲接金使, 先創康安·大觀兩殿, 金使至, 則入御康安殿, 引見于大觀殿

며, 적합한 터에 좋은 날을 택해서 상량에 이르게 되었음을 서술했다.

육위송은 6방에 걸쳐 7언 3구씩 모두 162자로 주변 경관을 그렸다. ‘兒郎偉拋梁○’라는 6언의 첫 구는 후대의 상량문과 똑같다. 동·서·남·북 및 상·하의 순으로 보면, 무지개 뜬 하늘, 화악산, 만세산, 북극성, 자추성(紫姮星)<sup>34</sup>, 조야(朝野) 등 개경의 경관을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읊었다.

결사는 ‘上樑以後’로 시작해서 오늘의 덕업이 계승되고 나라가 복되며 백성이 평안해지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문장의 형식이나 문체는 후대의 상량문과 똑같다. 다만 끝에 적는 연·월·일과 글쓴이가 없는데, 아마도 읊기는 과정에서 빠졌을 것으로 보인다.

### (3) 「대창니고상량문」(1225)

이규보가 고종 12년(1225) 전국 각처에서 올려보내는 곡물을 저장하던 국창(國倉)을 건립할 때 지은 상량문이다. 『동문선』에 438자가 실려 있고, 그의 『동국이상국집』에 실린 글에는 「을유년대창니고상량문(乙酉年大倉泥庫上樑文)」이란 제목에 ‘고원봉선술(誥院奉宣述)’이란 부기를 달려 있다.<sup>35</sup> 즉, ‘을유년(1225)에 국왕의 조서와 교서를 지어 바치던 관리들의 처소인 고원에서 명을 받들어 지었다’ 했으므로 1225년 작성이 확실하다. 당시는 최충헌을 이은 최우가 집권했던 때이다. 이규보가 사마시의 시관으로서 교서를 비롯한 각종 국가문서의 작성을 맡았던 고원의 소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사는 「선경전상량문」(1203)과 마찬가지로 첫머리를 ‘伏以’ 등이 아니라 육위송의 첫 구에 적는 ‘兒郎偉’로 시작했다. 모두 120자에 걸쳐 나라 창고인 곳집이 곡식을 저장하는 근원이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나라에서 가장 중대한 시설임을 언급했다. 이어서, 원래는 조제로

거둔 곡물을 저장하는 2천여 칸의 큰 규모였으나 협소하여 바깥에 쌓아 두는 상태로 지내왔음을 적었다.

본사는 ‘恭惟’로 시작하여 112자에 걸쳐 국왕이 선정을 펼치면서 곳집을 새로 짓고자 유사에게 명하니 불일(不日) 간에 완공했다고 했다. 또 춘추시대 노나라 목수 공수(公輸)의 기교보다, 황제(黃帝) 때 예수(隸首)의 산술보다 곡물 양을 더 잘 계산해서 짓게 되었다고 했다. 공수와 예수를 전고로 인용한 것이다. 서사와 마찬가지로 4, 6언 위주로 두 구씩 대구를 이루는 변려체로 썼다.

육위송은 앞서 본 상량문들과 마찬가지로 162자로 6방에 걸쳐 각기 ‘兒郎偉拋梁○’이란 구절 다음에 7언 3구씩 모두 18구의 시로 구성했다. 각 방의 주변 경관으로는 동쪽의 창룡과 각미, 서쪽은 화악산, 남쪽은 승산, 북쪽은 안문, 위로는 햇빛과 안개, 아래로는 대궐문을 각기 주제어로 삼아서 대단히 화려한 문체로 지었다.

결사는 후대의 상량문과 같이 ‘伏願上梁之後’로 시작했다. 모두 44자에 불과하지만 ‘이문화국’의 이념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즉, 상량한 뒤로는 신명과 하늘이 도와서 풍년이 들어서 남자는 곡식을 생산하고 여자는 길쌈을 해서 나라의 창고가 가득해져서 나라가 부강해지기를 비는 내용이다. 작성 일자와 작성자의 이름, 그리고 이하 공사 관계자 이름은 없다. 그러나 제목 첫머리에 ‘을유(乙酉)’라 하여 고종 12년(1225)에 상량했음을 알 수 있다.

### (4) 「보정문상량문」(13세기 초)

이백순이 지은 상량문으로 『동문선』에는 서사, 본사, 육위송, 기원문 등 네 단락의 490자가 실려 있다.<sup>36</sup> 보정문은 개경 나성 동남쪽 성문으로 장패문(長覇門)이라고도 했다. 작성 일자가 없어서 언제 상량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작가의 생몰 연대를 감안하면 대략 13세기 초

34) 서방에 있는 백호의 제 6성을 뜻한다.

35) 李奎報, 「大倉泥庫上樑文」(『東國李相國集』, 제19권);

兒郎偉 有屋曰廩 實惟穀藏之源 在天爲星 蓋是庫樓之象 於國莫大 其制宜宏 我國家 宅萬世之都 受四方之貢 知一曰食之爲重 峙千斯倉以爲儲 水轉而泊岸者 舟尾相銜 陸輸而互路者 車輪如織 取人也薄 雖公田什一而征 均地所生 尙歲計百千以數 然率多於露積 不奈幾於慢藏 無可奈何 姑息而已

恭惟聖上陛下 政先富國 事實便時 謂自昔已來 縱有圓困方廣 作支久之計 莫如崇構高墉 爰命有司 俾成不日 一曳木也 塵蔽百里 墮一石也 雷鳴萬山 經之營之 壯矣麗矣 爲功若此 雖公輸督墨無以加 容穀幾何 使隸首持籌莫能算 及涓穀且 將舉脩梁 敢揚七偉之聲 輒貢六方之頌

兒郎偉拋梁東 直指蒼龍角尾中 歲講春郊親籍禮 會看腐粟積陳紅 兒郎偉拋梁西 迴首平看華岳低 已攝闕賓供象翠 更徵身毒貢犂犀 兒郎偉拋梁南 正對嵩山王氣涵 欲識阜民歌詠洽 熏風解慍德遐覃 兒郎偉拋梁北 威服雁門編髮狄 莫問巍峨高幾何 積金至斗何曾極 兒郎偉拋梁上 蔽日豁震高百丈 何患公田未穀豐 已將天庫侔宏壯 兒郎偉拋梁下 更敞門閤容萬馬 流行何須較海陵 方苞已聽歌周雅

伏願上梁已後 神明幽贊 福祿來成 天生時地生財 三農豐稔 男餘粟女餘布 萬姓阜安 府庫充盈 邦家鞏固云云 (下缺)

36) 李百順, 「保定門上樑文」(『東文選』, 제108권);

虎踞龍蟠 壯矣京都之勢 翬飛鳥革 大哉門戶之儀 四方所觀 百代是式 猗歟勝事 屬我昌期 昔者鷄林當黃葉之衰 鶴嶺啓青松之盛 上帝降子 太祖應基 符義易之龍飛乾 創業垂統 體周書之龜食洛 立邦設都 考室法於斯干 重門取乎諸豫 作限內外 知通往來 百王所由共之 一日不可闕也 乃緣歷遠 胡不換新

惟主上殿下 舜孝堯仁 文謨武烈 收監典於千載之下 放宏規於三韓之前 至於啓塞之防 加以經營之役 工輸督墨 匠石揮斤 其立柱也 如女媧之堅鼈足以支天 其舉梁也 若五丁之曳虹尾而上漢 能事既畢 吉祥荐臻 敢揚七偉之聲 聊薦六方之頌

兒郎偉拋梁東 皆導秋空不露虹 聖德乾坤本無外 重瞳日月自當中 兒郎偉拋梁西 四柱擎天華岳低 西母玉環從此入 大宛金馬不須齊 兒郎偉拋梁南 鬱鬱葱葱瑞氣涵 桃熟千年今獻二 山呼萬歲定開三 兒郎偉拋梁北 四塞于今警鼓息 鏘金鳴玉擁千官 瑩寶航琛朝萬國 兒郎偉拋梁上 天上三台平兩雨 萬民東戶盡闌眠 無像大平還有像 兒郎偉拋梁下 不羨將將歌大雅 已教東國入金甌 於斯年保宗社

上梁之後 伏願龍圖有永 鳳曆彌長 劫石磨衣 校皇齡之莫及 張天爲紙 書聖烈之難窮 文武如琴瑟之和 上下若桴鼓之應 無一物之失所 水火土穀惟修 得二氣之協中 雨暘煥寒時若 狼烟沉於北塞 鯨浪息於東溟 戴白不見兵垂髻皆知秀 萬姓安堵 四海枕京 主上萬歲萬歲 (下缺)

무렵으로 추정된다.

서사는 122자로 첫머리에 ‘伏以’ 등이 없이 ‘虎踞龍蟠壯矣京都之勢 翬飛鳥革 大哉門戶之儀(범이 웅크리고 용이 서린 듯하니 장하도다. 서울의 형세여! 꿩이 날고 새가 날개 치니 크도다. 성문의 모습이여!)’라는 4, 6언으로 대구를 이루는 변려체로 시작된다. 이어서 태조가 신라에 이어 고려를 창립하고 도읍의 터전을 닦은 것을 칭송하는 내용을 적었다. 또 『주역』과 『시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중문(重門)인 보정문을 세웠으며, 안과 밖을 통하게 하는 성문이 참으로 중요했음에도 고쳐 짓지 못했음을 언급했다.

본사는 ‘惟’로 시작해서 98자를 4, 8언으로 대구를 이루는 변려체로 썼다. 고종은 무신정권 하에서 실권이 없었음에도 그를 순임금의 효도, 요임금의 인, 문왕의 규모, 무왕의 공렬에 비견해서 아낌없이 칭송했다. 이어서 노나라 공수가 규거를 정하고, 초나라 도목수 장석(匠石)이 치목하며, 중국 삼황의 하나인 여와(女媧)가 기둥을 세우고, 촉나라 역사인 오정(五丁)이 들보를 올리듯 하여 집을 완공했다는 등 고대 중국의 신화를 전고로 삼았다.

육위송은 첫머리의 ‘兒郎偉拋梁○’에 이어서 7언 3구씩 6방에 걸쳐 162자로 된 노래로 구성된다. 각 방에 걸쳐 동으로는 하늘에 뜬 무지개, 서로는 화악산, 남으로 천년 복숭아나무, 북으로는 변방의 오랑캐, 위로는 하늘의 삼태(三台), 아래로는 강성한 동국을 주제로 주변 경관을 읊었다.

결사는 ‘伏願上梁之後’를 도치시켜 ‘上梁之後 伏願龍圖有永(상량한 후에는 임금의 계획이 영원하기를 엮드려 비노라)’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108자에 걸쳐 기원하는 글을 썼다. 보정문이 군사시설인 때문인지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내용이 위주이다. 문무의 제신들이 화합하고, 상·하의 관민이 여기에 응하며, 북쪽 오랑캐의 침입이 그치고, 동쪽 왜구의 노략질도 멈춤으로써 만민이 편안하고 천하가 잠잠해지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건물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서 서술 내용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 (5) 「국자감상량문」(1251)

이장용이 지은 상량문으로 전체 330자로 짧은 서사와 본사, 육위송만 『동문선』에 실려 있다.<sup>37)</sup> 국자감은 태학

이라고도 하여 국가의 인재를 기르던 교육기관으로 조선 시대의 성균관에 해당한다. 『고려사』 고종 38년 8월 갑오조에 선성(先聖)의 진영을 새로 지은 화산동(花山洞) 국자감에 봉안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어서 그 직전에 이 글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사는 20자로 첫머리에 ‘伏以’를 생략한 채 4, 6언의 대구 형식으로 ‘유학이 크게 떨치니 나라가 잘될 것을 가히 보겠구나. 태학의 건물을 중수함에는 반드시 산천의 좋은 곳을 택할 것이로다(儒宗大振 可觀國家之興 龔宇重新 必卜山川之勝)’로 짧게 끝냈다.

본사는 전체 94자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첫 구는 ‘惟’로 시작하는데, ‘惟在過江之始 未違相地之宜 卽鄉學以經營 爲泮宮而講習(생각하건대 강을 건너야 할 때를 만나 마땅한 땅을 살펴볼 겨를이 없이 향학으로써 반궁, 즉 문묘를 만들어 여기서 강습했네)’이라 했다. 여기서 ‘과강(過江)’이란 고종 19년(1232) 몽골이 침입하자 강화로 천도한 일을 말한다. 강화에 임시로 1백 담을 쌓아서 지내다가 이제 여유가 생기자 앞서 화산(花山)에 지은 국자감을 이곳에 옮겨 지었다는 내용이다. 화산은 도성 남쪽 5리쯤에 있는 산인데, 때로 강화를 지칭하기도 했다. 상량하던 고종 38년(1251)은 비록 전쟁 중이었으나 나라에 필요한 영재를 기르기 좋은 곳에 국자감을 짓는다고 했다. 여기서 괴시(槐市)는 중국의 태학이 있던 고을을 지칭한다. 이를 전고로 삼아서 4언과 6언이 각기 대구를 이루는 변려체로 문장을 썼다.

육위송은 다른 상량문과 똑같이 전체 162자로 6방에 걸쳐 첫머리에 ‘兒郎偉拋梁○’라 한 다음 7언 3구씩 모두 18구를 읊었다. 주변 경관으로는 동쪽의 계궁, 서쪽은 오학(五學, 즉 동·서·남·북·태학), 남쪽은 산 아래, 북쪽은 포봉(炮鳳, 차린 음식), 아래는 태학관, 위로는 향학(嚮學, 즉 태학관)이 주제어이며, 서쪽과 북쪽, 위로는 구체적인 주제어가 없어서 다른 상량문보다 소략한 편이다.

결사는 108자로 후대의 상량문과 같이 ‘伏願上梁之後’로 시작된다. 국자감의 기능인 교화가 행해지고, 효제와 인의, 예악이 성행하며, 인재를 널리 양성해서 나라가 부강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문묘라는 건물의 성격에 맞게 썼던 것 같다. 글자 수는 다른 상량문에 비해서 대단히 짧고 내용도 소략하다. 그러나 몽골과의 전

37) 李藏用, 「國子監上樑文」(『東文選』, 제108권);

儒宗大振 可觀國家之興 龔宇重新 必卜山川之勝

惟在過江之始 未違相地之宜 卽鄉學以經營 爲泮宮而講習 郊坵既定 連百堵以中施 形勢則然 介一區而外絕 幸茲多暇 爾乃度功 得秀壤於花山 移宏模於槐市 華楹肪砌 美哉輪奐於咄嗟 練水螺峯 莫是英才之醞釀 脩梁乃舉 嘉頌斯揚

兒郎偉拋梁東 甲乙芳枝長桂宮 此地的應鍾秀氣 青春袞袞拜三公 兒郎偉

拋梁西 至魯行看一變齊 五學賈生言記取 尙賢貴德化群賢 兒郎偉拋梁南 眼底山低手可探 知有橫經相問道 誰將精義騁高談 兒郎偉拋梁北 玉振金聲夫子德 回也區區謾欲瞻 忽焉在後那容得 兒郎偉拋梁上 炮鳳方爲賢者養 濟濟青衿自琢磨 景行行止高山仰 兒郎偉拋梁下 儒術尊來蓋五霸 馳道當須築至斯 吾君嚮學嚴鸞駕

伏願上梁之後 教化流而孝悌行 仁義興而禮樂盛 誕敷文德 服遠域以懷柔 樂育人才 固洪基而又治 吾道益泰 大平適當 主上萬歲萬歲 (下缺)

표 2. 고려시대 궁실건축 상량문의 문장 구성과 내용

구분	연대	서사		본사		육위송		결사		전체 자수	전고
		자수	도입부	자수	도입부	자수	도입부	자수	도입부		
延慶宮	1195	128	-	162	恭惟	162	兒郎偉	-	-	452	周成王의 洛邑, 衛文公의 楚宮
宣慶殿	1203	48	兒郎偉	264	恭惟	162	兒郎偉	60	上梁以後伏奠	534	詩經의 衛文公, 殷나라의 亳社
大倉泥庫	1225	120	兒郎偉	112	恭惟	162	兒郎偉	44	伏願上梁之後	438	春秋時代 公輸, 黃帝때의 隸首
保定門	13C 초	122	-	98	惟	162		108	伏願上梁之後	490	文王, 武王, 公輸, 匠石, 女媧
國子監	1251	20	-	94	惟	162	兒郎偉	108	伏願上梁之後	330	漢代의 槐市, 齊나라와 魯나라

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한다는 신진사류의 의지가 뚜렷하게 느껴진다.

#### 4. 고려시대 상량문의 특성

고려 궁실건축 상량문 5편은 글자 수나 단락 구성, 문체와 전고 등은 전형적인 '긴 상량문'이다. 물론, 결사와 그 끝에 적는 작가명, 직함, 작성 일자 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문집에 옮겨 적을 때 누락되었을 것이다.

전체 글자 수는 후대의 상량문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다. <표 2>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선경전상량문」이 534자이고, 가장 적은 「국자감상량문」은 330자에 불과하다. 누락되었을 결사 등을 감안해도 전체 500자 내외였을 것이다. 후대의 상량문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sup>38)</sup>

일률적인 육위송을 제외하면 네 단락의 글자 수도 후대에 비하면 적고, 건물의 용도나 중요도에 따라 별반 차이가 없다. 물론 중국 북위 때의 초시적인 『창함문상량축문』과 비교하면 글자 수는 한층 많은 편이다. 규칙도 완전히 정형화된 테다 전고를 다양하게 인용하는 등 내용이 크게 풍부해졌다. 그러나 주제는 언제나 고려왕조의 정통성과 국왕의 치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단락별로 보면, 서사는 첫머리를 '伏以', '竊以', '夫' 등으로 시작해서 후대와 다를 바 없지만, 아예 없거나 '兒郎偉'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내용은 먼저 궁궐, 국창, 태학, 성문에 따라 약간씩 용도와 기능을 차이 나게 적고, 이어서 태조가 신라를 멸하고 새 왕조를 열었던 사실을 빠짐없이 언급했다. 몽골과 전쟁을 치르면서 고려야말로 강성했던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어서 주 성왕이나 위 문공의

덕업을 예외 없이 전고로 인용해서 국왕이 오늘의 건물을 경영하게 되었음을 찬양했다. 비록 실권 없는 국왕이지만 그의 치적을 온갖 미사여구로 찬양한 데서 '이문화국'의 이념을 지향했던 신진사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본사는 건축 조영에 관한 글로 다른 단락에 비해서 글자 수가 많은 편이다. 첫머리는 후대와 같이 '恭惟'나 '惟'로 시작해서 오늘의 건축 조영을 하게 된 배경과 완공 후의 모습을 서술한다. 이어서 국왕이 더욱 장려하고 외위한 새 건물을 짓도록 명한 유사와 장인을 중국 고사에 나오는 공수, 예수, 장수, 오정과 같은 불세출의 장인들에 빗대어 전고로 인용했다. 전체 글 중에서 실제 건축 조영에 관한 내용이지만 건축 규모나 공사 일정 등은 상투적이고 피상적인 서술에 그쳤다. 또 「대창니고상량문」과 「보정문상량문」처럼 본사 말미에 '七偉之聲(칠위의 소리를 떨쳐)'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六偉之聲'으로 적는 후대의 상량문과 차이가 나기도 한다. 아마도 전래 초기의 상량문이 갖는 특성으로 보인다.

결사도 '伏願上梁之後' 또는 '上梁以後 伏奠'로 시작해서 후대의 상량문과 거의 같다. 내용은 국왕의 통치가 빛나고, 풍년이 들어 백성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대창니고의 경우는 풍년이 들어 곡식이 많이 저장되기를 빌고, 보정문에서는 전쟁이 그쳐서 평화가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첨가된다. 또 국자감에서는 유학이 크게 융성하고 인재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원하는 등 건물에 따라서는 약간씩 기원의 내용이 차이 난다.

육위송은 모두 후대의 상량문과 같이 162자로, '兒郎偉拋梁○(아랑위야! 들보의 ○쪽으로 면을 돌리니)'<sup>39)</sup>에 이어 7언 3구씩 18수로 구성된다. 동·서·남·북·상·하의

38) 조선 후기의 궁실건축 상량문으로 李裕元이 쓴 「景福宮光化門上樑文」(1865)은 마지막의 공사 관계자 이름을 제외해도 900자이며, 「景福宮康寧殿上樑文」(1888)은 905자로 고려시대 궁실건축 상량문의 2배가 넘는 장문이다.

39)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예컨대 '兒郎'을 匠人이나 尸童으로 보고서 '아랑위야!', 또는 '여보게들!' 식으로 이를 부르는 소리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다. 또 물건을 들 때 힘을 모으는 의성어로서 보고서 '어영차'나 '어기어차'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 '拋梁○'를 제물로서 '면을 ○쪽으로 던지니'로 보거나, 또는 '들보를 ○쪽으로 들어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 한글 『정리의궤』에서는 '아랑위 포랑한 ○로'로 언해되어 있는데, '들보를 던진 ○에'라는 식이다. 이처럼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양해서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 때 다루기로 한다.

표 3. 고려시대 궁실건축 상량문 육위송의 주제어

구분	동	서	남	북	상	하	비고
延慶宮	蓬萊山, 四海	高架, 百蠻	華構, 崇嶽山	紫極星, 玉闕	萬瓦, 紫微宮	鴛鴦瓦	궁궐
宣慶殿	虹掛, 半空	華嶽山, 鳳凰	萬歲山	大壯卦, 宸極	鸞娥星, 天帝所	朝野, 千官	궁궐
大倉泥庫	蒼龍, 春野	華嶽山	崇山, 熏風	雁門編髮, 極星	日霞, 天庫	敝門, 方苞	국창
保定門	秋空, 日月	華嶽山	桃熟, 千年	四塞, 萬國	天上, 萬民	東國, 宗社	성문
國子監	桂宮, 此地	五學, 群黎	山底, 橫經	夫子, 顏回	炮鳳, 高山	五霸, 嚮學	태학

6방에 걸쳐 주요 경관을 읊은 것이다.

육위송의 6방은 동양 문화권에서 환경적 정위(定位)의 결과인 세계관의 상징적 도식이다. 예컨대 풍수국면이나 음양오행도의 사신(四神)은 동·서·남·북의 4방, 일월 또는 천지는 상·하의 2방에 대한 표상으로서 모두 신성시된다. 그래서 『주례』에는 천지사방의 신께 올리는 제사 때 옥으로 만든 예물을 육기(六器)라 했고,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죽림정사에 있을 때 6방을 향해 예배했던 이래 6방에 예물을 드린다. 또 일본 가부키(歌舞伎)에서 배우가 천지사방으로 손을 움직이는 것을 육방(六方)이라 한다.

따라서 육위송은 상량을 계기로 6방에 있는 신들께 고하는 축문이고, 건물이 천지사방 중에 제대로 자리 잡았음을 천명하는 노래라 하겠다. 여기서 6방의 신은 아랑이다. 그래서 7언 3구씩 배당된 6편의 시는 첫 구를 아랑이라는 신을 부르는 ‘兒郎偉(아랑위야!)’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각 방을 바라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자연경관이나 통치이념을 읊는 식이다.

한편, 6방에 걸쳐 경관을 대표하는 경물과 수식은 건물마다 약간씩 차이 난다. 건물이 자리 잡은 곳이나 용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육위송마다 개경을 둘러싸는 진산(鎭山)이 주된 경물인 점에서는 거의 공통적이다. 첫 구인 동쪽은 봉래산(蓬萊山), 서쪽은 화악산(華岳山), 남쪽은 송악산(崇嶽山) 등을 들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는 식이다.

이 밖에도 하늘에 걸린 무지개(虹掛), 반공(半空), 추공(秋空), 일월 등과 같이 하늘의 형상을 표현한다. 또 계궁(桂宮), 옥궐(玉闕), 만와(萬瓦), 고가(高架), 오학(五學), 자미궁(紫微宮) 등 천자와 그가 거처하는 궁궐, 관아의 화려함을 표현하고, 조야(朝野), 천관(千官, 백관), 차지(此地), 사해(四海), 군려(群黎, 백성), 만민(萬民) 등과 같이 조정과 백성들의 생활터전을 언급하기도 한다.

특히 궁궐인 연경궁, 선경전과 달리 대창니고, 국자감, 보정문과 같은 관아나 방어시설은 각기의 기능과 용도에 적합한 경물이나 관념적 표현이 구사된다. 대창니고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춘야(春野)나 방포(方苞, 사방

에서 貢을 바침)를 들고, 국자감에서는 횡경(橫經, 경서를 펴다), 부자(夫子, 공자), 안회(顏回, 공자의 제자), 향학(嚮學, 태학)을 거론한다. 경전 읽기를 장려해서 공자와 그 제자들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유학의 발달과 국가에 필요한 많은 영재의 배출을 기원한 것이다.

특히 연경궁, 대창니고, 보정문 등을 서술할 때는 백만(百蠻, 온갖 오랑캐), 안문편발(雁門編髮, 북방의 머리 깎은 오랑캐), 사색(四塞, 사방의 요새) 등을 들었다. 북방 오랑캐의 항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뜻이다. 그 무렵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때로 변방의 방비를 튼튼히 하는 한편, 북방 오랑캐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육위송의 시들은 각 방의 경관을 이루는 대표적 경물을 주제로 삼아 최대한 아름답게 묘사한다. 물론, 구절마다 똑같은 전고가 인용되고 비슷한 미사여구가 사용된 탓에 상투적 문구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바라보는 방향이나 사랑하는 건물의 성격에 따라서 경물과 내용이 다르고, 때로는 경세치민의 이념 등 관념적 표현들도 구사된다.

이처럼 육위송은 천지사방을 노래한 점에서 세계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 경관의 미를 노래한 점에서는 미의식을 함축하고 있으며, 신진사류가 지녔던 경세치민의 이념도 엿보게 하는 것이다. 상량문은 단지 의례에 부치는 축문으로서뿐 아니라 당대 지식인들의 의식세계를 담아냈던 공간이기도 했다.

## 5. 결 론

상량문은 건축 조영 과정에서 마룻대를 올리면서 치르는 상량식 때 부치는 축문이다. 오늘의 시각으로 상량문은 현장에서 작성된 공사 기록으로서 건축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1차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서적이거나 전적류와 같은 기록문화재의 하나로서도 가치가 작지 않다.

상량식이 어떤 연유로 가장 중요한 조영 의례가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주역』에는 건축 조영의 상

정어로서 상동을 언급하고 있다. 또 상량을 기해서 건물의 골격이 완성되고 성조신이 탄생한다는 믿음 등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실제로 『예기』나 『시경』에는 건축 조영 때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경사를 송도하고 오늘의 덕업이 후대까지 영속되기를 기원하는 노래를 읊었다고 했다. 제사로 치러지는 상량식 때의 축문이자 송도의 노래에서 상량문이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근세 이전까지 작성된 상량문들은 20~30자 내외로 입주·상량 일시만을 적은 ‘짧은 상량문’부터 1,000여 자가 넘는 ‘긴 상량문’까지 다양하다. 형태도 적는 위치나 재료에 따라서 부채 목서명, 지본, 견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뤄본 상량문은 주로 궁궐, 관아, 불전 등의 주요 건물에 사용된 ‘긴 상량문’이다. 조선 후기에 보는 ‘긴 상량문’들은 많은 내용을 네 단락으로 나눠서 일정한 격식과 문체로 적는 등 살림집 등에 사용된 ‘짧은 상량문’과 크게 차이 난다. 문장은 서사, 본사, 결사는 4, 6언이 대구를 이루는 변려체로 짓고, 육위송은 7언 3구의 율시로 지었다. 또 내용 중에는 반드시 전고를 인용하고, 전아의 특성을 최대한 드러내도록 하는 등 조선 후기에 이르면 시·부·사와 함께 독립적인 문체 유형의 하나로서 크게 중시했다.

현전 상량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 북위 때의 「창합문상량축문」은 전체 글자 수가 54자로 국왕의 덕업을 찬양하는 내용이 위주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 궁실건축 상량문 5편은 한층 발전된 형식으로 조선 후기에 비하면 글자 수가 약간 적을 뿐 문장의 격식은 똑같다. 이로 보아서 고려 중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상량문은 후대에 보는 것과 같은 완전한 규칙의 ‘긴 상량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 등에는 상량식과 상량문이 원의 간섭기가 시작되는 충선왕 북위 원년(1309) 원나라로부터 전래하였다고 기록된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상량문의 작성 시기 등을 감안하면 송나라와 교류할 때 전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연경궁정전상량문」을 비롯한 고려 궁실건축 상량문들이 모두 몽골과 전쟁을 치르던 무신 집권기에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량식과 상량문은 늦어도 12세기 무렵에 송나라에서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 상량문들이 작성될 당시는 무신들에 의해서 구 문신들이 대거 축출되거나 살해된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연경궁 정전을 비롯한 주요 건물의 상량문들은 새로 등용된 신진사류들이 맡아 지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들로 주로 국서의 작성을 맡는 한편, 시·부 등에 걸

쳐 많은 글을 지었다. 특히 이규보 등은 대몽전쟁기를 맞아 ‘이문화국’을 기치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예찬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왕도를 논하는 글들을 많이 썼다. 신진사류들이 지은 상량문에 특유의 찬 경세치민 이념과 문학적 기풍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한편, 고려 궁실건축 상량문들은 문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결사의 말미가 결락되거나 첨사는 아예 빠진 탓에 그 전모는 알 수 없다. 물론 결락부를 감안해도 글자 수는 조선 후기 상량문들에 비해서 적고, 건축 내용도 소략하다. 그러나 전체로 네 단락의 구분이 뚜렷하고, 변려체의 문장을 구사하며, 전고를 인용하고, 전아의 멋을 한껏 드러낸다. 여러 면에서 후대에 발달된 상량문과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단락인 서사는 주로 ‘伏以’로 시작하고, 본사는 ‘恭惟’, 육위송은 ‘兪郎偉’, 결사는 ‘伏願上樑之後’로 시작된다. 다만 육위송의 첫머리인 ‘兪郎偉’로 시작하거나 아예 서술형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내용은 고려가 신라를 멸하고 고구려를 계승했으며, 오늘의 건축 조영을 이룬 국왕의 치적을 주 성왕과 위 문공의 덕업을 전고로 인용해서 찬양하는 데 치중했다. 특히 몽골의 침입에 맞서던 시기여서인지 국난극복의 의지를 천명하는 내용이 많다.

둘째 단락인 본사는 건축 조영의 추진 과정을 설명한 다음 완공 후의 모습을 화려한 문체로 표현했다. 특히 장인과 유사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고대 중국의 불세출의 장인이나 산술가를 빠짐없이 전고로 인용했다. 국왕의 치적을 찬양하기 위한 전고를 인용하는 사사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셋째 단락인 결사에는 주로 오늘의 덕업을 계기로 국왕은 선정을 펼치고, 백성은 살림살이가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건물에 따라서는 전쟁의 종식, 백성의 풍요로움, 국가를 위한 인재의 배출 등으로 강조하는 대목이 약간씩 차이를 알 수 있다.

넷째 단락인 육위송은 동양 문화권의 전통적 세계관의 상징적 도식인 동·서·남·북·상·하의 6방에 걸쳐 경관을 노래한 시이다. 글자 수나 각 방에 7언 3구씩 배당하는 등 후대와 똑같다. 각 구는 귀신을 부르는 첫 구의 ‘兪郎偉’를 포함하면 칠언절구가 되는 셈이다. 상량식을 베푸는 현장을 중심으로 6방의 경관을 최대한 미사여구로 노래한 점에서 당대의 자연관과 미의식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또 육위송의 각 구에서는 방위에 따라 조망되는 대표적 경물이 주제어로 제시된다. 개경을 둘러싸는 봉래, 화

악, 송악 등의 산악의 모습이나 궁궐, 하늘, 북극성, 춘야 등 자연지물이나 건물과 같은 실체적 경관들이다. 다만 태학, 국창, 성문 등에서는 북쪽 오랑캐, 태학, 공자와 제자, 경전 읽기 등을 주제어로 관념적인 표현이 보인다. 전쟁의 종식, 유학의 발전, 풍년의 기원 등의 뜻을 표현한 것이다. 육위송은 상량식에 부치는 축문으로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지냈던 세계관이자 미의식을 함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신진사류들이 지냈던 경제치민의 이념과 기풍을 담았던 문학적 공간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상은 고려시대 궁실건축 상량문 5편을 건축사적으로 고찰한 결과이다. 후대의 상량문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격식을 보여준다. 다만 문건으로만 남은 탓에 실제 건물과의 대조가 불가능해서 아쉽게 짝이 없다. 문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가 결락되어 상량 일시나 건축 관계자 이름 등을 알 수 없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추후 새로운 문헌의 발굴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이규보의 「대창니고 상량문」 등에서 첫머리를 「兒郎偉」로 시작하고, 본사 말미에 「敢揚七偉之聲 輒貢六方之頌(감히 7위의 소리를 떨쳐서 문득 6방에 노래하노라)」이라 한 부분이다. 후대에 사용되지 않는 '칠위'나 다양하게 해석되는 '아랑'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해야 하겠다. 또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조사당 등 고려시대 사찰건축의 부재 목록명을 상량문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살펴본 고려 궁실건축 상량문들과 격식이 다르고, 불교 특유의 발원문에 가까워서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모두 추후의 연구 과제로 미뤄두기로 한다.

#### 참고문헌

1. 林宗庇, 「延慶宮正殿上樑文」, 1195
2. 崔詵, 「宣慶殿上樑文」, 1203
3. 李奎報, 「大倉泥庫上樑文」, 1225
4. 李百順, 「保定門上樑文」, 13세기 초
5. 李藏用, 「國子監上樑文」, 1251
6. 「南大門上樑文」, 1479
7. 李裕元, 「景福宮光化門上樑文」, 1865
8. 李裕元, 「景福宮康寧殿上樑文」, 1888
9. 심경호, 「상량문의 문학적 시론」, 한문학보, 20집, 2009.6.
10. 오용원, 「누정문학의 양식과 문체적 특징 -누정 상량문과 기문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44호, 2006.6.
11. 서치상, 「고려시대 상량문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5.5.
12. 서치상, 「불교건축의 상량문」, 『2015년 제2차 한국건축

- 세미나 자료집』, 부산경남건축사연구회, 2015.6.
13. 서치상, 「고려시대의 상량문」, 한옥문화, 41호, 2016.봄
14. 考古美術同人會, 『韓國古建物上樑記文集』, 1964
15.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上樑文集』, 1991
16. 李裕元, 『林下筆記』, 卷二, 1884
17. 『漢魏六朝文繡(續)』 「閭闔門上梁祝文」
18. 『高麗史』
19. 『高麗史節要』
20. 『太宗實錄』
21. 『宣祖實錄』
22. 『英祖實錄』
23. 『正祖實錄』
24. 『弘齋全書』
25. 『新增東國輿地勝覽』

접수(2016. 9. 19)

수정(1차: 2016. 11. 18)

게재확정(2016. 11. 22)